

토론요지

논전 1. 농정의 우선 순위는?

사회: 김한호(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토/론/요/지

논전 1. 농정의 우선 순위는?

두 발표자 김태연 단국대 교수와 이태호 서울대 교수 모두 다원적 기능 제고를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보았다. 다만 다원적 기능을 얻는 수단으로써 농업의 역할에 대해 관점 차이를 보였다.

김태연 교수는 시대에 따라 패러다임 전환과 거기에 부합하는 정책 전환을 이루는 유럽에 비해 한국은 여전히 전통적 정책에 머무는 상황이라 했다. 그리고 여전히 농업은 농촌의 대표적 산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잘 고안된 농업정책을 통해 다원적 기능을 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태호 교수는 다원적 기능을 강조하더라도 농업생산과 연계된 결합 산출물로서의 다원적 기능은 지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태호 교수는 농업과 농촌의 분리 현상, 그 속에서 일어나는 대농집중화에 초점을 두고 농업정책보다는 농촌정책을 통한 다원적 기능 제고를 강조했다. 그리고 농업정책은 일정부분 과감하게 시장경쟁에 맡길 것을 주문했다.

두 토론자 유정규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장과 조재호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의 경우도 큰 원칙에서는 동일한 입장이었다.

유정규 박사는 이태호 교수 접근을 김태연 교수 관점에서 보면 근대적 패러다임에 머물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조재호 국장은 김태연 교수 정책진단이 용어분석에 의존했는데 정치·행정적 요인에 의한 용어선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세부 정책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탈근대적 정책으로 전환 했다고 했다.